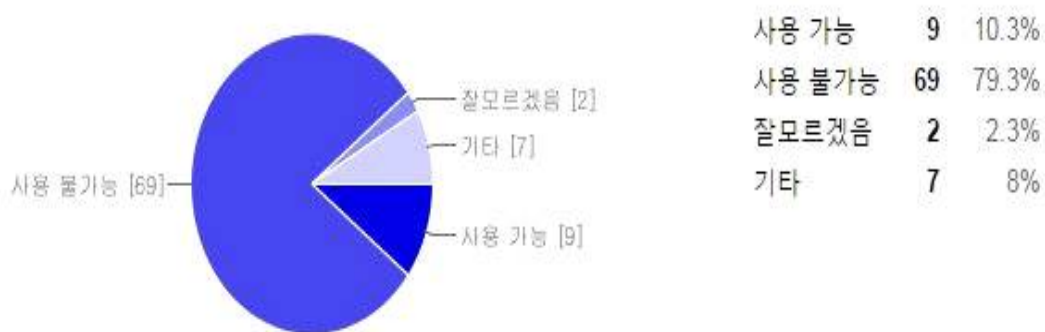


한국기록전문가협회 설문조사 결과보고

- 조사명 : 서울기록관 명칭에 대한 설문조사
- 조사기간 : 2015년 4월 14일 ~ 20일
- 조사방법 : SNS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
- 조사대상 : SNS를 공유하고 있는 기록전문가
- 조사결과 :



* 사실상 반대의견까지 포함하면 77명(89%)이 국가기록원의 “서울기록관” 명칭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함

○ 응답자 주요의견

가. 의견1 - “사용가능” (9명)

- 특정 기관의 명칭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면 상관없다고 생각함.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기록관처럼 행정단위를 기입하여 차이를 둔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함
- 서울기록관 명칭은 수도권 기록관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됨
- 서울시가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됨
- 원론적으로는 사용 가능하지만, 서울시의 "서울기록원" 추진이 알려진 상

황에서 부적절하며 성숙하지 못한 처사로 생각됨 (사실상 반대의견)

나. 의견2 - “잘 모르겠음” (2명)

- 성남서울기록관 등 다른 명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, 서울기록관과 서울기록원의 차이를 잘 모르겠음

다. 의견3 - “기타” (7명) (주된 내용은 사실상 반대의견)

- 국가기록원과 서울시 양 기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
- 굳이 서울이라는 명칭을 써야하는지 알 수 없음. 서울이라는 이름을 쓴다면 서로 다른 유형의 기관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양측이 명칭을 조정해야 함
- 잘못 사용된 것이라고 생각함 (혼란의 여지 많음)
- 다시 고려해봐야 함 (국가기록원 소속기관을 기록관이라고 칭하는 것은 부적절함)
- 명칭을 변경해야 함 (서울중부기록원 / 국가기록원 서울분원 등)
- 사용 가능하지만 잘못된 명칭임

라. 의견4 - “사용불가능” (69명)

- 지역과의 연관성 관련 :

- 지리적으로 서울이 아니면서 서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
- 다루게 되는 기록이 서울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음
- 서울이라는 지역을 대표하는 것으로 오해될 것으로 보임
- 국가기록원의 소속기관은 서울이라는 지명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, 서울시의 경우는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
- 지방의 고유 명칭은 지방자치단체만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

- 국가기록원 소속기관으로서의 성격 :

-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에서 기록관 명칭을 쓰는 것은 합당하지 않음
- 기록관 명칭의 사용은 법령 상의 용어 규정에 위배됨
- 국가기록원 성남분원, 대전분원, 부산분원 등이 적절하다고 생각됨

- 지방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관성 :

- 이용자인 국민에게 혼란을 줄 것임
- 각종 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로서 수치스러운 일임
- 영문 명칭을 Seoul Archives로 한 것은 창피한 일임
-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적절한 처사임
- 최초로 세워지는 서울기록원을 위해 국가기록원이 명칭을 양보해야 함

○ 조사결과에 따른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정책제안

‘국가기록원의 서울기록관 명칭에 대한 재검토 필요’

- 기록관, 기록보존소, 기록원 등 기록물관리기관 명칭 사용의 합리적 기준 필요
-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, 의사소통 필요
-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대표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참여토록 제도 개선 (“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” 제15조 제2항 관련)